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Blue Costumes in Contemporary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특성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blue costumes a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s such, we made an empirical analysis, using 436 works from 2006 S/S through 2010 F/W collections. Result indicated that modernness was emphasized by applying a minimum expressive technique to items of a simple form, and an image of simplicity was emphasized by placing focus on the rational color image of blue. Second, images of blue, such as trust, stability, and success were expressed as refined elegance through the combination of tight silhouettes, glossy and translucent materials, and indirect exposure. Third, natural image was expressed through natural silhouettes, soft or natural materials, gradation of various tones, and natural motif decorations as well as the color itself. Fourth, dynamic image was expressed by introducing fashion items, mostly worn by men only, to simple and tight forms or through the inspiration of a masculine fashion image. Fifth, abstinent image was expressed by using an image of religious apparel or symbols, covering up the body, minimizing details, and using a dark blue tone.

주제어(Key Words) : 색(color), 블루(blue), 현대패션(contemporary fashion)

I. 서론

색이란 빛이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시 감각으로 다양한 색의 연상과 상징으로부터 생기는 감정적 효과는 대상의 속성을 결정하게하며, 또 사람의 시선을 끌고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김선영, 2008). 또한 색은 지구촌 어디에서나 지각하고 활용하는 보편매체이자 문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유명환, 배운선, 2007), 오늘날과 같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색의 활용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정치,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조형성을 평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각적인 전달메시지가 강해 상품의 성격이나 유행경향, 패션의 이미지 등 표현하는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 패션과 관련된 색채에 대한 선행연구(곽혜선, 금기숙, 1998; 김문식, 2003; 김선영, 2008; 김수연, 2005; 김수영, 2008; 김일본, 유태순, 1999; 김주경, 2003; 정수인, 2007; 이경희, 1991)는 단색을 중심으로 색의 연상이나 상징적 의미, 선호색에 대한 연구, 의복이미지와 디자인 요소간의 관계, 색채계획이나 배색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색상과 관련한 미적특성이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흰색이나 블랙 등 무채색 위주의 연구, 또는 황색, 레드, 핑크, 카키, 황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블루색상에 관한 선행연구(김아라, 2008)는 서양복식사적인 측면에서 블루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만으로 블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블루는 색명 또한 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청사진, 블루오션, 블루칩' 등에서처럼 이상향과 희망, 밝은 미래를 담고 있고, 세계적인 색채연구소인 Pantone에서 2010년 대표컬러로 지정할 만큼 현대사회에 있어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 블루가 비천함과 야만의 색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반해 블루는 오늘날 성공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컬러로 전환되어 패션에서도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블루라는 색채가 지니는 상징성과 이미지, 그리고 순수회화나 영화, 마케팅 등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블루의 이미지 고찰을 기초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블루의상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색을 이용한 다양한 패션이미지 전개와 효과적인 색채계획으로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색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색채관련 국내외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 하였고, 블루의 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인 2006S/S부터

2010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컬렉션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품의 분석은 인쇄상태에 따라 컬러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컬렉션 잡지보다는 인터넷 패션사이트인 www.style.com과 www.firsvieview.com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블루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색채계획이나 배색보다는 블루의 이미지나 상징에 의해 성립된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블루의상의 선정기준은 한국 산업규격 표준색에 의해 블루범주에 속하는 색상범위 파랑(2.5B~5PB)에서부터 남색(5PB~10PB)에 이르는 모든 색을 블루로 간주하였고, 수식형용사를 적용한 색채표현에 있어서 선명한, 밝은, 진한, 연한, 흐린, 탁한, 어두운 블루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서는 상·하의 중 하나의 아이템만 블루이거나 여러 색에 의해 프린트되어 나타나는 문양의 경우, 그리고 데님소재를 사용한 작품은 제외시켰으며 블루 색상의 사용이 전체의상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명백히 블루로 보이는 436점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블루의 정의와 상징성

파랑은 470nm가량의 파장을 갖는 색으로, 가산 혼합에서는 빨강, 녹색과 함께 빛의 삼원색 중 하나이며 영어로는 Blue, 약호로는 B로 규정한다. 블루의 어원은 고대 게르만어계의 블라(bla)로 프랑스어의 bleu, 중세 영어의 blew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블루는 색명으로 명도와 채도에 따라 'vivid, strong, bright, deep, light, moderate, dark, pale,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blackish'로 표기되며, 흰색이나 갈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혼합에 따라 또 naby, cerulean, ultramarine, royal, marine, prussian, midnight, smoke, aquamarine, cobalt, peacock, nile, baby, indigo, oriental, saxe, sky 등의 많은 접미사와 함께 표현되어질 정도로 그 종류는 백여 가지에 이를 정도이다.

차가운 스펙트럼에 속해있어 기본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를 주는 블루는 남성을 나타내는 주요색으로 간주되나, 블루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내향적인 색으로 여성의 원칙을 상징하기도 한다. 블루는 생명의 4원색 중에서 물에 속하는데, 물 역시 여성을 상징하기도 한다(오희선, 김숙희, 2007). 남성과 여성의 상징적인 면을 모두 표현하듯이 Eva Heller(2000)의 <색의 유혹>에 따르면 블루는 오늘날 대중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으면서 비호감도가 낮은 색상으로 남자 46%, 여자 44%가 블루를 좋아하고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남자 1%, 여자 2%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블루의 이미지는 고대 로마 시절에만 해도 야만, 죽음, 가난, 불길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었는데, 왕족과 귀족은 야만 게르만족의 푸른 눈을 생각나게 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았고 화가들 또한 흰색, 검정, 노랑, 빨강만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 색채의 상징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색채는 정해진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으며(김아라, 2008), 그 속에서 블루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빛과 아름다움과 풍부함 등 금색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빛, 천상의 빛, 모든 창조물을 비춰주는 빛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죽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피에타상의 성모에 의해 성스러운 색으로 전환되어 신비함, 근엄함, 성스러움의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다(Michel, 2002).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과학의 발달로 색의 제조방법이나 염색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복식에서 블루가 다양해졌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의복에서 선호하는 색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18세기에는 물리화학의 발달로 염색방법이나 염색기술이 발달하여 천연염료인 인디고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합성안료의 제조방법이 발견되어 복식이나 회화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색조와 프러시안 블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블루는 새롭게 형성된 색의 상징체계에서 진보의 색, 빛의 색, 꿈과 자유의 색으로 인식되어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위치가 확고해졌다(김아라, 2008).

색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자극하며, 색에 대한 감성은 국가와 민족, 개개인의 경험과 소속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하나의 색이 보내는 연상 이미지는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 등 다양하다. 즉 각각의 색이 보내는 보편성과 다양성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조형 혹은 예술조형을 가리지 않고 그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최영훈,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는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며 고요하고 깊이 있는 색으로 심오한 느낌을 주는 품위가 있고 이지적인 색으로 시원함과 청량감, 젊음, 행복, 희망, 평화, 성공, 청결, 믿음, 명예 등을 상징한다. 특히 블루는 인간의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하늘의 이미지로 인식되어 하늘의 광대함과 무한함은 블루를 먼 곳에 대한 동경의 색이자 경이로운 것과 닿을 수 없는 것을 염원하는 색으로 연상되게 하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Calvin은 가장 아름다운 색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색이며 은총이 가득한 색(김아라, 2008)이라고 하기도 했다. 오행사상과 관련하여 블루는 동쪽방향을 가리키는데, 이는 해돋이, 밝음, 맑음 등과 연관된 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하늘의 빛과 연관된 블루는 서양에서 신들의 상징적 색채로 그리스 신화의 Zeus, 북유럽의 주신인 Odin 역

시 블루 컬러의 복색으로 표시되었다(박영수, 2007).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귀족과 귀족남의 정절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영국 국왕의 영원한 상징인 정절로 만들어진 로열블루가 국왕의 권위를 나타낸 데는 이처럼 정절과 짐묵이 동반되기 때문이다(오수연, 2004).

또 레드가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라면 블루는 정열을 진정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색이며,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색으로서 일상생활로부터 도피시켜주는 색으로 작용한다. Goethe는 블루를 '자극하는 무'로서 끊임없이 무로 후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른바 유희하는 자극이자 겸허함과 차분함을 가져오는 감각효과라(박영수, 1995) 할 수 있다.

반면 비오는 날, 우울한 창밖을 연상시키며 우울함, 근심, 보수적인, 불안, 고독, 냉혹 등의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색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태도는 우리가 쓰는 언어, 속어, 은어 및 일상회화 등에 잘 나타나는데(Faber, 1990), 'feeling blue, blue law, blue devils, blue monday, blue language, blues' 등과 같은 말들에서도 블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차갑고 우울한 블루는 Picasso의 청색시대 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1901년부터 1904년에 이르는 시기의 작품들이 차갑고 우울한 블루를 주조로 하고 있는데서 붙여진 것으로, 주제는 대개 빈민들 즉 거지, 장님, 거리의 악사, 절망한 여인 등으로 사회적 비판주의, 실의와 절망을 표현하였다. 예술비평가인 Helen Kai가 "전형적인 피카소의 블루는 비참함, 차가운 손가락, 동상, 핏기 없는 입술, 굶주림의 블루다. 그것은 절망의 블루로 정말 파랄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피카소는 블루를 통해 우울함과 절망을 표현해냈다(김아라, 2008). 즉 블루는 맑고 푸른 이미지 뒤에 인간의 불행이 지나는 비극성, 사색, 우울, 체념, 공허한 느낌, 깊은 성찰과 반성의 마음, 고독의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평소 꿈꾸고 있는 이상을 이끌어내는 색이라 하겠다.

또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색채가 형태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블루는 원이나 구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차갑고 축축하며 투명한, 영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며 망막에 흐릿한 상을 맺는 색이기도 하다(Faber, 1990). 색채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블루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으로 눈이나 신경의 피로회복, 맥박을 낮추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2. 현대사회에 나타난 블루의 활용사례

색채연구소 Pantone은 2008년의 컬러로 'Blue Iris'를 선정한다. 블루와 퍼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아이리스는 블루의 안정감과 차분함, 퍼플의 신비함과 영적인 분

위기를 한데 결합한 색상으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안도감을 불어 넣어주는 색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컬러 선정의 배경이었다. 또 2010년의 컬러로는 'Turquoise'를 뽑았다. 선정이유로 Pantone는 지난해 경제 위기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이들에게 시원한 하늘과 푸른바다를 떠오르게 하는 터키블루로 치유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듯이('그대안의 아바타 블루', 2010) 블루는 희망을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한 색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색은 시 지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며, 재료, 질감과 더불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색채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인간의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색채의 상징적인 대화가 영화에서는 중요한 알레고리로 사용되어(오희선, 김숙희, 2007) 희망과 절망,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한다. 특히 블루의 두드러진 부각은 2009년 개봉한 영화 <Avatar>를 선두로 '아바타 블루'의 유행을 낳았으며, 뉴욕, 파리 등 유명패션 컬렉션은 물론 각종 액세서리와 색조화장품, 가구, 주방용품 등에서 블루가 중요컬러로 등장하였다('그대안의 아바타 블루', 2010). 또 Krzysztof Kieslowski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Blue>, <White>, <Red> 3색 시리즈의 작품은 프랑스 국가에서 파했으며 유럽 통합을 기원한 작품이기도 하다. 블루, 화이트, 레드 이 세 가지 컬러는 각 영화의 소품들로 등장하여 영화제목으로 연결되는데, <Blue>는 자유를 상징하는 색이며, 영화 속 소품으로 등장하는 푸른 상들리에에는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인의 자유를 표현하였다. 초현실적 무대연출로 유명한 David Lynch감독의 <Blue velvet>에서 여주인공의 의상을 상징하는 블루는 어두운 단조의 노래와 함께 감독 특유의 허무에 대한 성찰과 신비주의, 초현실적 환상을 나타내는 색으로 표현되었으며, Walter Murec감독의 <Return to Oz>에서는 마법사가 살고 있는 성을 푸른색으로 처리하여 신비로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김지예, 2004).

또 회화는 색과 선의 집합에 의하여 평면상에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조형미술로서 그 표현매체가 주로 이차원의 화면이라는 점에서 색채의 요소가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Picasso의 청색시대 작품을 통해 우울한 블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지만, 현대 화가들에게 블루는 억눌린 감정을 해체하고 진실한 감정을 투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1911년 Franz Marc, Kandinsky 등은 '청기사'라는 화가모임을 결성하기도 하였는데, Kandinsky는 "파랑은 깊어질수록 우리를 무한한 것으로 이끌며, 순수 그리고 궁극적으로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운다."고 하

였으며, 블루로만 작품을 전개한 Yves Klein은 자신의 블루를 '이브클라인 파랑'으로까지 특허를 냈다('그대안의 아바타 블루', 2010).

마케팅 학자 Hepner가 "색채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색채가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듯이(김윤경, 이경희, 2001), 컬러가 생리적 또는 심리적 면에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품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대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컬러 마케팅이 대두되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Tiffany는 제품의 질과 장인정신에 대한 평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카탈로그와 브로슈어, 포장박스 등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블루 하나의 컬러로 일관되게 적용해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차별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파격적인 컬러 이미지를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충격요법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되기도 한다. 1990년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Apple사를 회생시킨 아이맥 컴퓨터는 색과 맛의 어울림을 강조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명과 반투명의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밝은 블루의 아이맥은 기계적이기만 하던 컴퓨터의 이미지를 가볍고 명랑하고 친근한 제품으로 변화시켰다. 아이맥이 도입한 블루는 21세기 디지털기술을 상징하는 물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수평적으로 공유되는 디지털시대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색이다(한국색채학회, 2001). 또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트닷컴 등 포털업체들 역시 자사의 메인 페이지 컬러를 블루로 하고 있는데, 이는 블루가 상징하는 자유와 희망이 인터넷이 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또 자기 탐구와 내적성장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성향과 잘 맞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오수연, 2004).

디지털기술이 앞서 갈수록 기술은 속으로 숨어두고, 보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교감의 디자인이 표면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색의 비중은 크게 자리 잡게 된다(한국색채학회, 2001). 특히 전자 및 가전제품에 있어 차세대 광원으로 LED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업계의 디자인 화두는 단연 빛이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에어컨에 무드조명이라는 신개념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정한 온도에 도달할 때마다 에어컨 앞면의 꽃과 나비모양에 블루 LED조명이 은은한 푸른빛을 내게 하였으며, HP의 데스크노트는 자판에 은은한 빛을 내는 블루 LED를 적용하여 세련된 감각을 나타내게 하였다('빛나는 제품', 2008).

이와 같이 블루는 Goethe가 "누구나 파란색을 마지못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서양의 블루', 2009)."라고 했듯이 인간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 있어 오늘날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컬러

〈표 1〉 블루의 이미지와 상징성

이미지와 상징성	미적가치
긍정적 이미지 안정, 청결, 이상, 청량, 젊음, 건강, 활기, 투명, 명상, 이지, 성실, 신뢰, 희망, 성공, 신비	우아미, 자연미, 세련미, 역동미, 현대성
부정적 이미지 냉혹, 우울, 비극, 반항, 공포, 야만, 차가움, 불안, 고독, 냉정, 비애, 슬픔	숭고미, 금욕성, 전위미, 현대성

로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강병희, 1995; 김아라, 2008; 이희진, 2005)와 본 장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루가 갖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특성

색채는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며, 특히 패션에서의 색채는 논리적인 정보가 아닌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패션디자인의 이미지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색채이미지와 관련하여 의복의 색채이미지를 연구한 강병희(1995)는 블루는 보수적인, 캐주얼한, 활동적인, 남성적인, 산뜻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해 연구한 차미승(1992)은 모든 의복형태에서 블루는 성숙한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하였고, 강혜원(1996)은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명한 블루는 개방감과 활기, 젊음과 시원함 등을 표현하여 리조트웨어에 사용하며, 남색계열의 어두운 블루는 단정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나타내지만 어두운 블루의 지나친 사용은 무겁고 냉혹하며 우울한 느낌을 표현하여 전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화이트와 블루의 배색은 아주 현대적

이고, 깨끗하며, 귀족적이고 산뜻한 인상을 표현한다.

본 장에서는 최근 5년간인 2006S/S부터 2010F/W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컬렉션의 작품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조형성을 형태와 소재, 아이템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블루의상의 조형적 특징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분석 결과와 앞장에서 고찰한 블루 색상의 이미지와 상징성에 근거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블루의상의 작품 선정과 미적 가치를 위한 특성 도출에 있어서는 색채 및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 3인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사용된 436점은 블루 색상의 사용이 상·하의를 포함하여 전체의상의 5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명백히 블루로 보이는 작품만을 선정하였고, 상·하의 중 하나의 아이템만 블루이거나 여러 색에 의해 프린트되어 나타나는 문양의 경우, 의상의 일부뿐만 블루인 경우, 그리고 데님소재를 사용한 작품은 제외시켰다.

1. 블루의상 디자인의 조형성

1) 형태

일반적으로 블루는 가장 조용하고 후퇴되어 자기의 감성을 드러내지 않는 색이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도하다. 블루의상에 나타난 형태는 총 436점의 작품 중 단순형이 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밀착형 21.8%, 노출형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형의 경우 A라인이나 H라인 등으로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다양한 블루 톤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만을 달리한 채 〈그림 1〉과 같이 장식적인 디테일이 배제된 단순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또 신체에 밀착되는 블루의상은 드레스나 원피스 또는 재킷이나 팬츠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 등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실루엣으로 여성인체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되었으며, 노출형은 신체의 직접노출 외에



〈그림 1〉
Jil Sander,
2008S/S
(www.style.com)



〈그림 2〉
Julien Macdonald,
2007S/S
(www.firstview.com)



〈그림 3〉
Versace,
2009F/W
(www.style.com)



〈그림 4〉
Eto,
2008F/W
(www.style.com)



〈그림 5〉
Haider Ackermann,
2007F/W
(www.style.com)



〈그림 6〉
Richard Nicoll,
2010F/W
(www.style.com)



〈그림 7〉
Alexander McQueen,
2007F/W
(www.firstview.com)



〈그림 8〉
Armani Privee,
2010S/S
(www.style.com)



〈그림 9〉
Balenciaga,
2007S/S
(www.style.com)



〈그림 10〉
Richard Nicoll,
2010F/W
(www.style.com)

트임이나 부분적인 노출, 시스루 재질을 통한 간접 노출의 형태를 통해 나타냈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코르셋을 이용하거나 몸에 밀착되는 형태, 또 〈그림 3〉과 같이 깊게 파인 네크라인이나 긴 트임 등 다양한 노출의 형태를 통해 여성의 인체를 직,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라는 컬러가 주는 신비로움, 침착함이나 차가움, 이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능적이라기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 또는 미래적인 감각을 나타냈다.

2) 소재

시간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색채와 함께 소재 역시 상품성격이나 유행의 경향,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효과가 크다. 블루가 가지는 생동감, 건강함, 젊음, 활기, 반항의 이미지는 블루진을 상징하게 되며,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는 영화 〈에텐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등에서 주인공이었던 James Dean이나 가수 Elvis Presley 등 반항적인 스타의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대 반체제 운동의 상징으로 히피들이 블루진을 적극적으로 착용함에 따라 블루진은 반체제주의자들의 복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블루가 갖는 다양한 색이미지와 같이 여러 질감으로 표현되는 블루의상의 경우 사용된 소재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블루의상에 이용된 소재는 무광택소재가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광택소재 36.5%, 비치는 소재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캐시미어, 울, 면, 니트와 같은 광택이 없는 소재는 광택소재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특히 명도와 채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블루가 지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로 인해 제복의 색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현대패션에서도 〈그림 4〉와 같이 어두운 네이비블루 톤과 군복 이미지의 차용 등으로 역동적인 현대여성의 이

미지를 나타냈다. 반면 성모마리아의 상징색이며, 여러 신화를 통해 종교적 측면에서의 블루의 이미지는 〈그림 5〉와 같이 무광택소재의 어두운 블루 톤으로 온몸을 감싸는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금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블루의상에 사용된 광택 소재는 벨벳, 모피, 새틴, 실크, 타프타, 가죽, 비닐 등이 있는데 블루의 색상 차이에 따라 세련된 여성미에서부터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벨벳은 빛이 닿는 방식과 파일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를 만들어 풍부한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그림 6〉과 같이 벨벳과 무광택소재의 대비는 소재에서 오는 질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블루 톤 안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또 모피 특유의 광택과 함께 염색 및 가공을 통한 다채로운 색상표현으로 인해 독특한 질감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림 7〉은 블루로 염색하고 격자무늬 모양으로 모피표면을 깎아 소재 자체의 디자인을 부각시킨 것으로 모피의 겉은 빛의 반사에 따라 다양한 톤의 블루로 변화되어 표현되었다. 새틴이나 실크, 타프타의 경우는 블루의 차분함이나 이성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우아한 드레스나 원피스 등에 사용됨으로써 〈그림 8〉과 같이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 일반적으로 블루색상의 가죽이나 비닐소재는 역동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미래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데, 〈그림 9〉와 같이 몸에 피트 되는 원피스에 가죽이나 비닐 특유의 반짝거림은 차가운 블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비치는 소재로는 시폰이나 오간자, 망사, 레이스 등 시스루 소재를 이용한 의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완전 노출보다도 더욱 자극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나 차가운 블루 톤의 속성으로 인해 모던한 이미지로 표현되거나, 〈그림 10〉과 같이 비쳐 보이는 피부 톤을 더욱 창백하게 나타내 신비로우면서도 전위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3) 아이템

아이템의 경우 총 436점의 작품 중 원피스 외에 투피스나 쓰리피스로 연출된 경우 각각의 의복아이템별로 분석한 결과 총 550개의 아이টে으로 나타났다. 블루 톤을 중심으로 전개된 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의복의 아이টে이 적용되어 나타났으나 이중 원피스가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드레스14%, 팬츠11.8%, 재킷 10.7%, 스커트8%, 블라우스나 튜닉7.5%, 코트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탑이나 점퍼, 블루중, 바디슈트 등의 기타 아이টে이 6.4%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블루 색상의 상징성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표현 특성

1) 단순미의 강조

블루는 환상의 색이며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감성적인 색이지만 일반적으로 블루가 가진 색채이미지는 좌뇌의 색으로 감성이 아닌 지능의 표시이다(이희진, 2005). 이러한 이미지는 블루를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색으로 나타내게 하는데, 패션에 있어서도 블루는 색 자체가 나타내는 차

가움과 도시적이고 지적이며 합리적인 이미지로 모던하고 단순성을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현대 조형예술에 있어 모던함은 장식 제거를 통한 단순함을 지향하면서 복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가왔고(김선영, 2008), 현대패션 역시 인체의 왜곡이나 과잉 장식성을 특징으로 하는 과거의 복식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실용성에 역점을 두어 모더니티를 이루게 되었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단순성의 이미지를 강조는 최소표현 기법을 통해 나타나는데, 최소표현이란 최소의 디자인 요소와 제작과정으로 단순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디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것이 배제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체에 어떤 왜곡도 가지지 않고 거의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실루엣에 내부에 일체의 구조선이나 장식선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구성선의 최소화를 위해 원피스 형태가 적용된 이러한 디자인은 인체를 감싸는 하나의 면 구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디테일이 생략되고 되어 단순함의 극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역시 짙은 네이비블루 톤의 원피스로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로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 의복의 한 아이টে 내에서 그리

<표 2> 블루의상의 디자인 특징

		블루의상의 디자인 특징		조형미
형태	단순형	282 (64.7%)	직선적 실루엣과 단색 직물, 장식배제, 무광택, 광택소재, 비치는 소재의 부분적인 사용, 원피스, 드레스, 재킷, 코트 아이টে에 주로 사용	단순미, 역동미
	밀착형	95 (21.8%)	여성인체곡선을 강조, 다양한 소재의 사용, 원피스, 드레스, 팬츠, 바디슈트에 주로 사용	우아미, 역동미
	노출형	59 (13.5%)	직접노출, 또는 트임이나 부분적인 노출, 시스루 재질을 통한 간접 노출의 형태, 원피스, 드레스, 블라우스에 주로 사용	우아미, 단순미, 금속미
소재	무광택소재	223 (51.1%)	캐시미어, 울, 면 등으로 현대적 감각표현, 단순한 형태의 의복 아이টে에 주로 사용	단순미, 역동미, 금속미
	광택소재	159 (36.5%)	벨벳, 모피, 새틴, 실크, 가죽, 비닐 등으로 다양한 이미지 연출, 단순형과 밀착형의 의복아이টে에 주로 사용	우아미, 단순미, 자연미, 역동미
	비치는소재	54 (12.4%)	시폰, 레이스, 망사, 오간자 등으로 간접노출 표현, 밀착형과 노출형의 의복 아이টে에 주로 사용	우아미, 금속미
아이টে	원피스	192 (34.9%)	다양한 블루 톤을 이용한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의 형태, 다양한 소재의 활용	우아미, 단순미, 자연미, 역동미, 금속미
	드레스	77 (14%)	다양한 블루 톤을 이용한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의 형태, 다양한 소재의 활용	우아미, 단순미, 자연미, 금속미
	팬츠	65 (11.8%)	재킷이나 코트 등과 함께 투피스의 형태로 연출되며 스트레이트나 몸에 피트 되는 형태, 광택, 무광택 소재의 사용	단순미, 역동미
	재킷	59 (10.7%)	단순한 형태이나 다양한 톤 변화와 함께 팬츠, 스커트, 원피스와 함께 연출, 무광택, 광택소재의 사용	단순미, 역동미
	스커트	44 (8%)	디테일이 최소화된 단순한 형태로 블라우스, 튜닉, 탑, 재킷 등과 함께 연출, 무광택, 광택소재의 사용	단순미, 자연미, 역동미
	블라우스, 튜닉	41 (7.5%)	단색의 장식적인 디테일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로 스커트, 팬츠, 레깅스와 함께 연출, 비치는 소재, 광택소재 주로 사용	단순미, 자연미, 역동미
	코트	37 (6.7%)	어둡고 짙은 블루 톤 중심의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 무광택, 광택소재 사용	단순미, 역동미
	기타	35 (6.4%)	다양한 블루 톤과 소재를 활용한 탑, 블루중, 점퍼, 바디슈트 등이 다른 아이টে와 연출되어 다양한 이미지 연출	단순미, 역동미, 금속미



〈그림 11〉
Calvin Klein,
2010F/W
(www.style.com)



〈그림 12〉
Versace,
2008F/W
(www.style.com)



〈그림 13〉
Versace,
2009S/S
(www.style.com)



〈그림 14〉
Milaschon,
2009F/W
(www.style.com)



〈그림 15〉
Valentino,
2009F/W
(www.style.com)



〈그림 16〉
Versace,
2010F/W
(www.style.com)

고 착장 시 각 아이템 간의 조합에서 색 사용의 최소화로 단순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루의상의 경우 화려한 프린트 물보다는 단색의 무지 원단을 통해 표현되어 자칫 단조로운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블루의 다양한 톤 변화를 통해 최소한의 장식적인 기능을 나타냈다. 〈그림 13〉은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에 같은 톤의 벨트로 통일성과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밝은 블루 톤의 사용으로 블루의 경직된 이미지 대신 보다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그림 14〉는 심플한 원피스에 기하학적인 사각형모티브로 디자인 효과의 극대화를 나타낸 것으로 화이트와 블루 배색이 주는 모던함은 단순성의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아이템에 최소표현기법을 통해 모던함을 강조시키고 블루의 이성적인 색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단순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2) 세련된 우아미의 표현

우아미의 기본적인 특색은 형태의 세밀함이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곡선으로 우아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우아미의 미적가치는 고급소재, 단정하고 정숙하여 격식에 어울리는 품위성, 도회적이며 섬세하고 기교의 성숙함이 있는 세련성, 섬세하고 감미로운 매력이 있는 여성성, 그리고 복식 내에서 각 부분들이 상호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조화성(안선희, 이명희, 2009)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자신의 여성적인 특질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패션에 있어 색의 이미지는 절대적인 요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블루의 과장되지 않은 럭셔리한 이미지는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블루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중 '여자가 학식이 있는, 인텔리의, 대단한, 귀족의, 고귀한'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증시의 블루칩, 골프의 블루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2006F/W
(www.style.com)



〈그림 18〉
Issey Miyake,
2010S/S
(www.firstview.com)



〈그림 19〉
Gucci,
2009S/S
(www.style.com)



〈그림 20〉
Celine,
2009S/S
(www.style.com)



〈그림 21〉
Erdem,
2010S/S
(www.style.com)

티, 위스키의 블루라벨처럼 현대사회에 있어 블루는 빈자의 컬러가 아닌 부와 성공의 컬러로 최고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의 의상도 블루였듯이 블루는 성공과 함께 은반 위에서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15〉는 여성의 몸을 감싸듯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광택소재로 여성의 인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인체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낸 드레스이고, 〈그림 16〉은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으로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며 가슴부분에 깊게 패인 트임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인체의 왜곡이나 과장 없이 단순한 형태와 단색, 또는 톤 인 톤 배색, 그리고 블루 컬러가 주는 침착함이나 차가움, 이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능적이라기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냈다. 〈그림 17〉 역시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간접노출의 형태로 표현된 드레스로 진한 푸른빛이 주는 차분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드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겹의 주름, 조형적인 선의 구성에 의해 성숙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블루가 갖는 신뢰, 안정, 성공, 청결함과 같은 색 이미지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광택소재와 반투명소재, 직, 간접적인 노출 등과의 조합에 있어 관능적이라기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

되었다. 또한 단순형이나 밀착형, 노출형의 형태로 다양한 블루 톤을 이용하여 단색을 위주로 한 드레스나 원피스와 같은 아이템에 표현되어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3) 자연적 이미지의 강조

블루는 인간의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하늘의 색으로 인식되는 색으로 인류에게 색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이래 하늘을 표현하기 위한 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색채감정이 블루 복식의 상징성 성립에 큰 작용을 하였다.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패션컬렉션을 통해 인간의 욕망, 죽음, 파괴, 존엄성의 상실, 고갈과 훼손되어져 가는 자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자연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작품에 자주 반영시켰으며, 에콜로지 테마는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켜 편안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시대인들의 공감대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김선영, 심준영, 2008).

이러한 표현에 있어 블루를 중심으로 한 패션디자인의 전개는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한다. 블루는 맑고 순수하고 청량하며 투명한 하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비로운 구름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하늘의 광대함과 무한함은 블루를 먼 곳에 대한 동경의 색, 경이로운 것과 닿을 수 없는

것을 동경하는 색으로까지 인식시키며, 생명의 4원색 중에서 물을 상징하듯이 블루는 하늘과 바다, 물 등 자연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18〉은 마치 질푼 물감이 번지는 것과 같은 효과로 청명한 하늘이나 바다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원피스이다. 〈그림 19〉 역시 비대칭라인의 우아한 이브닝드레스로 드레스라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 다양한 블루 톤의 미묘한 조합과 함께 자연의 형상 또한 추상적인 모티브로 나타나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현대패션에서 자연성의 추구는 형태의 과장을 없애고 직물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키며 인공적인 실루엣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체 선을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디자인 안에서 블루라는 색은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최대의 장식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 〈그림 20〉과 같이 자연소재에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염색된 원피스는 기계적이지 않은 풍성한 주름장식을 통해 풍요로운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21〉은 단순한 형태의 블루 원피스 위에 다크 블루의 꽃무늬 레이스를 컷 워크 한 것으로 블루 톤만을 이용해 차분한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패션디자인을 통한 이러한 표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의 표현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정을 느끼고자 하는 현대인의 소망이며 자연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라 하겠다.

자연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심신의 안정과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블루의상에 있어 자연적 이미지의 표현효과는 색 자체에서 주는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물이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실루엣, 부드러운 소재나 자연소재, 그리고 다양한 블루 톤의 조합과 그라데이션,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모티브 장식을 통해 나타났다.

4) 역동적 이미지 표현

블루는 'Blue Collar', 'Blue Jean' 에서 연상되듯 노동의 색이지만, 선명하고 밝은 블루가 주는 젊음과 활기는 리조트 웨어에 자주 적용되어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야구나 축구 등 각종 스포츠웨어의 유니폼으로도 자주 적용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블루 컬러는 신뢰감과 함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최근 들어 남성과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대신 여성의 특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소비하는 '알파 걸' 이 소비시장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슈퍼우먼 또는 워킹 맘 세대와 비슷하지만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당당하고 적극적이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적인 재테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



〈그림 22〉
Moschino,
2008F/W
(www.style.com)



〈그림 23〉
Burberry Prorsum,
2008S/S
(www.style.com)



〈그림 24〉
Versace,
2010F/W
(www.style.com)



〈그림 25〉
Jean Paul Gaultier,
2007S/S
(www.style.com)



〈그림 26〉
A.F. Vandevorst,
2007S/S
(www.style.com)



〈그림 27〉
Giles
2008F/W
(www.style.com)

가 있다(‘어풍당당 알파 걸을 잡아라’, 2007).

이러한 트렌드와 함께 블루가 갖는 활기는 블루의상에 있어 성의 해체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그림 22〉는 견장, 각진 어깨, 짙은 네이비블루 등 전통적 군복의 이미지를 차용해 강인한 인상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블루컬러와 금색버튼의 배색효과는 남성적 군복의 강직성과 부정적 이미지를 약화시켜 중성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현대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23〉은 몸에 피트 되는 원피스, 군복 디테일의 코트, 허리선을 강조한 벨트 등 선명하고 밝은 블루의 단색으로 연출된 것으로 여성적인 매력을 그대로 과시하며 역동적인 알파 걸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4〉 역시 여성인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니트 상의와 블루 가죽팬츠를 이용하여 알파 걸의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블루는 현대패션에 있어 노동의 색이 아닌 젊음과 활기의 색으로 표현되었다. 역동적인 이미지표현을 위한 블루의상의 경우 단순형이나 밀착형의 형태로 문양이나 화려한 장식이 배제된 채 블루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여성패션에 주로 남성들만이 착용해왔던 패션아이템을 도입하거나 남성적인 요소 또는 패션이미지에 영감을 얻어 부드러움이나 온화함 같은 전통적인 여성성이 아닌 보다 강렬하고 액티브 한 감성을 나타냈다.

5) 금욕적 이미지 표현

중세시대 블루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빛의 컬러로 인식되었고, 천주교에서 성모마리아의 색 역시 블루이며, 터키 블루는 이슬람 종교의 색으로 성전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블루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비로운 빛의 색이며 종교적인 금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히 현대사

회에 있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테러와 전쟁 등의 상황은 사람들의 관심을 종교와 자연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서 이를 주제로 한 작품이 등장하였으며 이런 경향은 패션계에도 확산되어 나타난다. 블루가 갖는 성스럽고 신비함, 헌신, 고독, 공포의 이미지는 종교적인 상징물, 종교복식의 이미지 차용과 함께 금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2007S/S에 Jean Paul Gaultier는 성모마리아를 주제로 쿠티르 컬렉션을 개최하면서 종교적 권위와 신성의 의미로 성상의 뒤를 장식하는 후광을 헤드 장식, 성화의 이미지 등을 활용하였는데, 〈그림 25〉는 죽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피에타상의 성모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푸른 눈물의 메이크업과 블루 드레스는 성스러우면서도 금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26〉 역시 수녀복의 형태나 베일과 같은 아이템을 차용한 것으로 단색의 블루가 주는 차가움과 고독, 슬픔은 장식의 배제와 단순한 형태와 함께 금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현대패션에서 종교적 엄숙함과 금욕적인 이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짙은 색상에 인체를 은폐하는 금욕적 형태의 성직자 복식으로, 〈그림 5〉와 같이 짙은 블루 드레스는 블루라는 색상만을 나타낸 채 일체의 디테일이나 장식 없이 전신을 감싸는 형태로 금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낸다. 또 〈그림 27〉은 노출된 어깨, 여성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컷 아웃 드레스이지만 짙은 블루 톤이 주는 우울함, 얼굴과 머리 전체를 감싼 복면의 형태, 마치 찢겨져 있는 것처럼 표현된 드레스는 공포와 죽음, 수도자의 금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여 여성적인 매력과 상반된 묘한 아이러니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블루의상에 있어 금욕적 이미지의 표현은 종교복식이나 상징물의 이미지 차용, 육체의 은폐와 디테일의 최

소화, 짙은 톤의 단색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의 극단적인 화려함이나 노출 등 보이고자하는 욕망이 아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였으며, 또 도적인 내면성으로의 복귀를 나타냈다.

IV. 결론

색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상호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호이며, 추상적인 개념과 사고들을 상징화하며 미적기반을 만드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색에 있어 블루는 생동감과 안정감의 뉘앙스뿐만 아니라 때로는 차갑고 우울한, 슬픔 등의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는 모순된 느낌으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본 연구는 블루의 이미지와 상징성, 현대사회에 나타난 블루의 활용사례 등을 기초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블루의상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블루의상의 형태는 단순형이 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밀착형, 노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형은 직선적인 느낌의 강조, 장식적인 디테일의 배제, 단순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밀착형은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실루엣으로 여성인체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되었으며, 노출형은 신체의 직접노출 외에 트임이나 부분적인 노출, 시스루 재질을 통한 간접 노출의 형태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블루라는 컬러가 주는 신비로움, 침착함이나 차가움, 이성적인 이미지로 인해 관능적이라기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나타냈다. 소재는 무광택소재가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광택소재, 비치는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광택 소재는 명도와 채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블루가 지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로 인해 역동적인 현대여성의 이미지나 금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광택 소재는 블루의 색상 차이에 따라 세련된 여성미에서부터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시폰이나 망사, 레이스 등 비치는 소재의 경우 차가운 블루 톤의 속성으로 인해 모던하거나 신비롭고 금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아이템의 경우 다양한 의복에 적용되어 나타났으나 이중 원피스가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드레스, 팬츠,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나 튜닉, 코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을 보이는 블루의상의 표현효과는 첫째, 단순성의 강조이다. 단순한 형태의 아이템에 최소표현기법을 통해 모던함을 강조시키고 블루의 이성적인 색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단순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둘째, 세련된 우아미의 표현이다. 블루가 갖는 신뢰, 안정, 성공과 같은 이

미지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광택소재와 반투명소재, 직, 간접적인 노출 등과의 조합에 있어 관능적이라기보다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또한 단색을 위주로 한 드레스나 원피스와 같은 아이템에 표현되어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째, 자연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색 자체에서 주는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실루엣, 부드러운 소재나 자연소재, 그리고 다양한 블루 톤의 조합과 그라데이션,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모티브 장식을 통해 나타났다. 넷째, 역동적 이미지 표현이다. 단순형이나 밀착형의 형태로 문양이나 화려한 장식이 배제된 채 블루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여성패션에 주로 남성들만이 착용해왔던 패션아이템을 도입하거나 남성적인 요소 또는 패션이미지에 영감을 얻어 부드러움이나 온화함 같은 전통적인 여성성이 아닌 보다 강렬하고 액티브 한 감성을 나타냈다. 다섯째, 금욕적 이미지 표현이다. 종교복식이나 상징물의 이미지 차용, 육체의 은폐와 디테일의 최소화, 짙은 톤의 단색 사용으로 금욕적이고 도적인 내면성으로의 복귀를 나타냈다.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을 가장 많이 자극하게 되는 색은 패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전달이나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의 컬러로 부각되는 블루는 현대패션에 있어 형태와 소재, 아이템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표현효과를 나타내며 현대인의 개성과 감성에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색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현대패션에서 색채사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병희(1995). 청색이미지의 고찰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곽혜선, 금기숙(1998).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231-252.
- 그대안의 아바타 블루(2010. 2. 23.). 조선일보. C1.
- 김문식(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키색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드의상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3), 1-12.
- 김선영, 심준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한국의류학회지**, 32(5), 61-72.
- 김수연(2005).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빨강의 색채감성

-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메탈릭 컬러의 색채특성과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라(2008). Blue컬러와 그 상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이경희(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드 이미지.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3(3), 204-210.
- 김일분, 유태순(1999). 의복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 103-119.
- 김주경(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황색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예(2004). 16mm영화에서 색채의 역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수(1995). **우울한 블루, 그리운 파랑**. 서울: 새길.
- 빛나는 제품(2008. 2. 26.). 조선일보. B2.
- 서양의 블루(2009. 7. 7.). 문화저널 21. <http://www.mhj21.com>에서 2010년 5월 2일 인출.
- 안선희, 이명희(2009).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특성. **복식문화연구**, 17(3), 30-40.
- 여풍당당 알파 걸을 잡아라(2007. 5. 1.). 조선일보. B3.
- 오수연(2004). **색의 유희**. 서울: 살림.
- 오희선, 김숙희(2007). **재미있는 색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유명환, 배운선(2007). **디자인으로 문화읽기**.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경희(1991). 의복형태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진(2005). 블루 컬러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인(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분홍색의 색채특성과 배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훈(1985). **색채학개론**. 서울: 미진사.
- 한국색채학회(2001). **색채가지세상**. 서울: 국제.
- Eva, H.(2000). **색의 유희**. 이영희(역). 서울: 예담. (1989년 원저발간)
- Faber, B.(1990). **색채심리**. 김화중(역). 서울: 동국출판사. (1946년 원저발간)
- Michel, P.(2002). **블루, 색의 역사**. 고봉만, 김연실(공역). 서울: 한길아트. (2001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11년 5월 2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4일